



특집/'95년 석유정책

'95년도

LPG산업 및 가스 안전관리 정책방향

金 殷 圭  
<통상산업부 가스관리과장>

## 1. '94년도 추진실적 및 개요

### 가. LPG 가격관리

국내 LPG 가격은 '94. 1. 1 국제 LPG 가격의 하락과 유통단계의 인건비 등 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최종 소비자가격을 프로판일반용은(15원/kg, 3.26%) 인상하였고, 부탄 일반용은 종전가격을 유지하였다.

'94년 국제 LPG 가격은 유가와 마찬가지로 안정세를 유지하여 국내 기준가(138.02\$/톤)의 차액을 석유사업기금으로 총 579억원을 정수하였다.

그러나 국내 수입 LPG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사우디 ARAMCO에서 '94. 10부터 LPG 수출가격을 유가에 연동되고, 현물시장의 프리미엄을 일부 반영하는 SP(SAMAREC Price)에서 유가 및 현물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하는 CP(Contract Price) 제도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94. 12월부터 국제 LPG 가격이 프로판이 155\$/톤, 부

탄이 177\$/톤으로 급상승하여 국내 기준가보다 높아 '95. 1 이후 도입 분부터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나. LPG 수급

'94년도 LPG 수급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수요는 전년동기 대비 7.1% 증가한 5,382천톤이다.

프로판의 경우에는 가정·상업용 및 도시가스용 등 용도별 수요증가율이 둔화되어 6.4% 증가하고, 부탄의 경우에는 8.5% 증가에 그쳤다.

공급은 전년동기 대비 9.0% 증가한 5,638천톤으로 생산은 4.4% 증가한 1,688천톤, 수입은 10.7% 증가한 4,213천톤으로 '94년도 수급 실적은 다음과 같다.

### 다. 가스안전관리

#### 1) 가스관련 규정의 개선·보완

'94. 3. 9자 가스관련 3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함으로써 경제 행정규제 완화 측면에서 가스설비 수

리시 부품교체등에 대한 안전검사 생략과 사용신고 시설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정기교육 주기를 완화하였으며,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액을 현실화하고 LPG 용기의 검사방법을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였다.

아울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각각 '94. 6. 28자 및 8. 6자로 개정하여 소규모 고압가스제조자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고 LPG 탱크로리의 폭발방지장치 설치의무를 삭제하는 등 기업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또한 석유화학시설중 10년 이상 노후시설에 대해 4년마다 정기검사 대신 안전진단을 받도록 함과 더불어 배관 매몰전 중간검사를 받도록 제도화 함으로써 가스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검사제도를 개선하였다.

#### 2)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중심으로 노후불량주택 약 35천세대, 호텔 등 불특정 다수인 출입건물 및 공공건물 1,200개소, 도시가스배관, 정압

〈표-1〉 '94 LPG 수급실적

(단위: 천톤)

	프로판			부탄			계		
	1993	1994	증감(%)	1993	1994	증감(%)	1993	1994	증감(%)
수요 (공업원료용)	3,197 (144)	3,401 (199)	6.4	1,826 (486)	1,981 (22)	8.5	5,023 (630)	5,382 (221)	7.1
공생산	394	427	8.4	971	998	2.8	1,425	1,688	4.4
수입	2,830	3,134	10.7	977	1,079	10.4	3,807	4,213	10.7
급	3,224	3,511	10.5	1,948	2,077	6.6	5,172	5,638	9.0

기, 벨브 등 10,800개소, 성수대교 붕괴와 관련한 교량통과 가스배관 255개소, 해빙기 대비 도시가스시설 충전소등 1,475개소, 도시가스공급 기지 4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개선토록 하였고, 또한<sup>1</sup> 94.10.19일부터 11.1일까지 12일간 통상산업부, 시·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8개반 278조 581명)으로 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공급자의 의무준수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동 점검결과 공급자 의무규정 미준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 3) 가스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

가스사고의 대부분이 일반사용자의 시설취급부주의 등 사용자의 안전 소홀에 기인하고 있어 가스기기의 사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가스사용 주역인 여중·고생 450,000여명에 대한 순회교

육실시와 아울러 여고 가정교과목에 가스안전내용 게재를 위해 교육부에 협조를 요청, 추진중에 있으며 정기 교육대상자등 80,000여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스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TV, 라디오 등 1,600여회, 공익광고협의회를 통한 공익광고 20회, 전단 및 포스터 등 유인물 77여만부 제작 배포, 가스안전스티커 800만매를 제작, 전국사용가에 배포 및 분기 1회(동절기 월 1회) 반상회보 게재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통상산업부 주최로 '94.10.6일 「제1회 가스안전촉진대회」를 개최하여 가스업계관련 종사자에 대한 유공자 포상, 우수사례발표등 가스안전의식 확산을 도모하였으며, 가스사용량이 많아지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94.8.31부터 '94.9.9까지 10일간 전국의 가스사업자 및 시·도 관계공무원에게 가스관계 주요법령을 주지시키고 가스사고 예방의식을 높혀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전국 15개 시·도에서 가스공급자 준수의무사항 순회설명을 개최하였다.

## 2. '95년도 정책방향

### 가. LPG 가격 및 기금관리

#### 1) LPG 가격관리

국내 LPG 가격은 최근 국내 LPG 가격의 급등으로 유가완충재원을 통한 손실보전 또는 손실규모의 추이에 따라 가격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제 LPG 가격의 변동추이를 보아가면서 손실보전 또는 가격조정등 탄력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유가연동제 실시 및 유가자 유화 방침에 따라 국내 LPG 가격제도의 개선방향은 단기적으로 LPG 유통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공급측면의 경쟁력을 확보한 후, 가격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

〈표-2〉 '95 가스안전관리기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운 용 규 모		1994계획	1995 계획(안)			전년대비 증 감
			요 구	조 정	증 감	
수	○ 전 년 도 이 월	146,918	165,175	164,265	△ 910	17,347
입	○ 정 수	112,144	125,758	126,322	564	14,178
	○ 이 차 수 입	21,915	24,340	22,855	△1,485	940
	○ 응 자 상 환	12,298	13,113	13,124	11	826
		561	1,964	1,964	-	1,403
지	○ 안 전 공 사 보 조	9,151	12,989	10,666	△2,323	1,515
	○ 유통구조 개선용자	35,000	35,000	35,000	-	-
	○ 공공자금 예 탁	-	30,000	30,000	-	30,000
출	○ 차 년 도 이 월	102,767	87,186	88,599	1,413	14,168

진하되, 유통단계에서 안전, A/S 등 서비스의 부가 및 차별화에 따른 서비스가격을 차등화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국의 공동주택의 보급확대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LPG 집단공급사업의 공급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어, 공급규모에 따른 표준 공급가격의 모델을 제시하여 협약관청, 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한 공급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집단공급사업자와 사용자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공급규정도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공급규정을 작성하여 적극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 2) 가스안전관리기금

가스안전관리기금은 LPG 생산 및 수입업자로부터 4.5원/kg을 정수하여 LPG유통구조개선 및 가스안전과

리사업에 응자 또는 보조하여 사용하고 있다.

기금 보조사업으로는 가스안전공사의 검사·교육·홍보사업의 예산 중 부족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규모는 기금이자수익(131억원)의 범위 이내인 106억원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유통구조개선 및 가스안전관리 사업의 융자지원은 융자실적 및 업계의 요구등을 감안하여 전년 수준인 350억원으로 하고, WTO 체제 하에서 상계기능 보조금으로 분류되는 가스기기제조사업자 및 용기제조사업자에 대한융자 지원을 폐지하고, 판매사업자의 체적판매시설의 설치를 신규 융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가스안전관리기금의 융자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 나. 유통구조 개선

#### 1) 체적판매시설 및 판매소시설개설 적극 추진

'95년도 LPG 전체수요의 65% (2,309천톤)가 가정·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에서 가스배달주문도 특정시간대에 편중되다 보니 판매소에서 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없고, 현재와 같이 중량판매 실시를 계속하는 한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도부터 가스안전관리기금의 융자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LPG판매사업자의 복수용기등 체적판매시설과 판매소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을 융자지원이 가능하므로 중량판매제를 체적판매제로 적극 유도하여 소비자의 불편 불만과 판매업자의 계획배달·점검으로 인력난을 해소토록 할 계획이다.

〈표-3〉 프로판 용도별 수요추이

(단위 : 천톤)

## 2) 다세대·밀집건물의 집단공급 시설 설치 유도

다세대 주택등 다수의 수요자의 밀집건물에서 개별용기를 사용하므로 판매업자간의 과잉경쟁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가스안전 확보 측면에서 불안전한 점을 감안하여 집단공급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 3) 충전업계의 경쟁력 제고

'96년도에 자동차충전업을 '97년 도에 용기충전업의 대외개방을 앞두고 충전사업시설 설치비와 텁크로리 구입비용 등에도 가스안전관리기금의 융자지원을 하여 경쟁력 제고를

높여 나가도록 할 것이다.

조)

### 〈부 탄〉

- 운수용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공업원료용 수요의 대폭 감소(남해화학의 비료제조용을 나프타로 대체)로 전년도 수준인 1,981천톤으로 용도별 수요추이는〈표-5〉과 같다.
- 운수용 수요는 택시 증차 및 LPG 상용차 보급확대로 전년대비 11.5% 증가 전망된다.  
- 중형택시 연료원단위(6.88톤/년, 대)가 소형(5.73톤/년, 대)에 비해 약 20% 높은 수준이다. (〈표-6〉 참조)

〈표-4〉 LPG 사용가구수 추이

	1992	1993	1994	1995
-총 가구수(천가구)	11,995	12,585	13,074	13,591
-LPG가구수(천가구)	9,139	9,009	8,763	8,544
(보급율 %)	(76)	(72)	(67)	(63)
-가구당사용량(kg/년)	216	234	249	267

〈표-5〉 부탄 용도별 수요추이

(단위 : 천톤)

	1993 (실 적)		1994 (잠 정)		1995 (전 망)	
	물 량	증감 (%)	물 량	증감 (%)	물 량	증감 (%)
가정상업용	26 (1)	18.2	33 (2)	26.9	47 (2)	42.4
운수용	1,178 (65)	4.6	1,361 (69)	15.5	1,517 (77)	11.5
산업용	136 (7)	1.5	145 (7)	6.6	145 (7)	-
공업원료용	486 (27)	△0.8	442 (22)	△9.1	272 (14)	△38.5
합계	1,826 (100)	3.0	1,981 (100)	8.5	1,981 (100)	-

## 2) 공급계획

## 〈생 산〉

- 91년 이후 정유사의 정제설비 증설시설('91 : 840→'95 : 1,818천 B/D) 본격 가동으로 전년대비 18.5%증가한 1,688천톤으로 정유사별 생산계획은 <표-7>와 같다.

## 〈수입〉

- LPG 수입계획은 수요증가율이 둔화되고 정유사의 생산증대로 전년도 대비 5.1% 감소한 3,998천톤이며, 장기계약 도입분이 3,800천톤으로 수입계획 물량의 95% 정도이다.
  - 수입계획대비 장기계약분의 과부

#### ◦ 수입계획대비 장기계약분의 과부

즉 물량은 적기현물구입, 프로판/부탄 SWAP 등으로 적절히 대처하고, 프로판의 경우 계절별 수요 적차가 큰 반면에 장기계약분은 균분도입케 되어 있어 월동기중에는 현물구입이 불가피하다.

〈재고〉

- 운영재고 물량을 증강하여 전년도 대비 15.2% 증가한 372천톤을 재고 목표로 하고 있다.

## 라. 가스안전관리

- 1) 가스관계법령 및 제도개선  
액화석유가스 분야에 대한 경제행  
정규제완화 측면에서 액화석유가스  
수입시 일정기준 이하에 대하여 종  
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일부 완화  
할 계획이다. 또한 가스안전관리제  
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허가관  
청이 법령상 허가기준 외에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던 것을 허가  
기준내에서만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허가기준을 명  
확히 하고,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  
대상식품점업소의 경우 70제곱미  
터 이상에서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며, 수용가수가 20미

〈표-6〉 LPG 상용차 추이

	1992	1993	1994	1995
- 택시댓수(천대)	189 (6.42)	195 (6.24)	205 (6.65)	215 (6.85)
- 상용차댓수(천대)	- ( - )	36 (1.20)	72 (1.50)	108 (1.50)

주 : ( )는 연료원단위(톤/년, 대)

〈표-7〉 정유사별 생산계획

(단위 : 천톤)

	프로판			부탄			계		
	1994	1995	증감(%)	1994	1995	증감(%)	1994	1995	증감(%)
유호유화쌍용현대대림산업등	149 84 51 72 42 29	173 109 72 104 42 41	16.1 29.8 41.2 44.4 - 41.4	411 241 95 178 43 30	475 241 121 250 48 12	15.6 - 27.4 40.4 11.6 $\triangle$ 60.0	560 325 146 250 85 59	648 350 193 354 90 93	15.7 7.7 32.2 41.6 5.9 $\triangle$ 10.2
계	427	541	26.7	998	1,147	14.9	1,425	1,688	18.5

※국제 납사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따라 석유화학 부산물 LPG의 자체 소비 가능성이 있어 실제 생산공급물량은 다소 유동적임.

만인 소규모 집단공급시설을 허가대상에서 제외하여 다세대 주택등에서의 집단공급을 쉽게 하도록 하는 한편 시·도지사가 도시 가스공급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시 용기집합에 의한 집단공급사업이 가능하도록 가스수용가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단체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단체도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재해보상 및 회원사의 경제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일부제조 공정을 다른 생산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하는 경우 동 공정에 필요한 제조설비를 갖추지 아니하도록 하여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는 등 과도한 규제나 실현성이 미약한 규정은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 2) 가스시설의 안전점검 강화

가스사용 취약시설인 면적 70m<sup>2</sup>~100m<sup>2</sup>미만의 다방, 음식점등 57,000개소에 대해 년중 점검을 실시하여, 동 점검결과 부적합업소에 대하여는 해당관청에 통보하여 조속히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백화점, 공항, 터미널 등 불특정다수인 출입업소 1,139개소, 도시가스사 공급시설(제조소, 정압기등) 1,646개소, LNG 인수기지 및 공급기지 51개소, LPG 충전소, 석유 화학시설, 노후 공동주택등 845개, 양로원, 고아원 등 무의탁자 보호시설 300개

소등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사고 위험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95. 1 ~ 2월중 국내·외 학계, 업계, 한국가스안전공사등 합동전문가 43명이 참여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과 병행하여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Safety Management System) 구축방안을 수립하고 20년이상 경과된 21개 석유화학 플랜트에 대해서도 분야별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문인력과 외부전문가 합동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위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가스안전 확보를 위한 다각적 예방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무총리실에 중앙안전점검통제회의를 두고 그 밑에 통상산업부 중앙안전점검 대책반을 설치(24시간 상시가동)하여 가스·광산 분야를 비롯한 석유·화학시설 등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안전점검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 지적된 문제점을 토대로 각종 제도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 3) 대규모 교육, 홍보강화

국민들의 가스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의 생활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해와 같이 10월을 가스안전 강조의 달로 정하고 정부, 관련단체 및 업계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2회 가스안전축전대회」를 개최하여 안전관리우수업체별 포상과, 시·도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직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포상실시와 함께 우수사례 전파등을 통해 가스안전의식 확산 및 기업간의 안전관리경쟁 촉발을 유도하고 사고사진전시회, 거리캠페인 및 특별점검등의 부대행사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스사고의 대부분이 취급부주의등 사용자의 안전소홀에 기인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금년에는 「사용자 취급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 예방에 최대역점을 두어 공익광고협의회를 통한 공익광고 실시와 아울러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유료광고 1,300여회 이상, 홍보용 만화제작(30만부), 차량 홍보용 스티커제작(1,000매), 가스안전지 발간(3만부, 격월), 기타 판화, 전단 등 홍보유인물 제작, 배포, 아파트 구내방송을 통한 홍보등 다양한 홍보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스안전교육의 확대 실시를 위하여 · 중고생 중심의 가스안전사용요령에 대한 지역별 순회계동교육을 확대 실시(45만명)와 함께 여고가정 교과목에 가스안전내용개재를 위해 교육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법정 교육 56,000명, 양성교육 7,500명, 위탁교육 1,100명 등 전문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설문조사등을 통한 교재내용의 개선 및 외래전문강사 초빙 등 현장 중심의 교육을 중점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